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귀국 후 첫 훈련에 나선 KIA 선수들이 15일 광주일고 인조구장에서 캐치볼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다.

"마무리 투수를 찾아라"

KIA 타이거즈 귀국 첫 훈련 … 한기주 복귀까지 앤서니·유동훈 '돌려막기'

2번타자엔 신종길 유력

'마무리를 찾아라.'

59일간의 스프링캠프 여정을 끝낸 KIA 타이거즈가 15일 광주일고에서 귀국 후 첫 훈련을 실시했다.

KIA는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와의 대결을 시작으로 오는 4월1일까지 시범경기 14경기를 치른다.

마운드 줄부상으로 고심했던 KIA 선동열 감독은 '마무리 찾기'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시범경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동열 감독은 "마무리를 정하는 게 우선이다. 선발과 마무리를 정해야 중간을 세팅할 수 있다. 일단 앤서니·유동훈을 마무리로 생각하고 있다. 한기주가 캠프 철수 하기 전 피칭을 한 번 했는데 이달말 정도 경기에 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무리하게 준비를 하지 않겠지만 한기주가 마무리를 해준다면 선발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마무리'고민을 털어놨다.

한기주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는 선발 후보 앤서니를 뒷문에 배치하고 임준혁·김희걸을 전방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범경기 투수 로테이션은 마운드 구상을 위한 시나리오다.

에이스 윤석민을 가장 먼저 출격 시켜 컨디션을 확인하고, 임준혁을 두 번째 경기에 넣어 선발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서재응에 이어 일본에서의 연습경기가 취소되면서 실전 피칭을 하지 못했던 라미레즈를 처음으로 마운드에 올린다.

보직이 확정되지 않은 앤서니는 초반 두 경기에서 마무리로 투입 한 뒤 시범경기 막바지 선발로 공을 던지게 할 계획이다.

변수가 많은 마운드에 비해 타선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선 감독은 "타자들의 컨디션은 좋다. 올해는 공격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번의 배치에 따라서 타자들의 활용 폭이 달라질 것인데 신종길이 2번 역할을 해줄 경우 이범호-김상현-안치홍으로 클린업트리오를 구성할 생각이다. 나지완을 6번으로 하고 김원섭이나 이현곤을 7번, 8번에는 포수를 넣고 김선빈을 9번에 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종길을 기대주로 꼽은 선 감독은 부상에서 벗어난 포수 김상훈의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다.

선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공격성'이다. 시범경기는 '공격성' 테스트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선 감독은 "부임이후 좋은 분위기,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또 공격적인 야구를 주문했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 스프링캠프 막바지에 내가 원하는 (공격적인)야구를 하지 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느낀 게 있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내일 SK와 시범경기 '스타트'

무등경기장 공사로 4경기만

프로야구가 2012시즌을 위한 기지개를 켠다.

스프링캠프를 통해 전력을 만들어온 프로야구 8개 구단이 17일 시범경기에 돌입한다.

선동열 감독을 사령탑으로 앞세운 KIA는 오후 1시 문학구장에서 SK와 첫 대결을 갖는다. 잠실에서는 LG와 삼성이 만나고, 한화와 넥센은 청주에서 시범경기 첫 경기를 치른다. 사직에서는 롯데와 두산의 대결이 벌어진다.

2012 프로야구 시범경기는 팀간 2차전, 팀당 14게임을 치르게 되며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더블헤더는 열리지 않으며 9회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승부치기가 진행된다. 연장 10회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승부가 된다.

구장 보수공사 관계로 한화의 홈 경기는 대전구장이 아닌 청주구장에서 열린다. 천연잔디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4경기 밖에 열리지 않는다.

KIA는 오는 27·28일(LG)그리고 31일과 4월1일(한화) 홈경기를 치른다.

각 구단은 시범경기를 통해 스프링캠프의 성과와 새로 합류한 신인·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게 된다.

박찬호(한화), 김병현(넥센)이 처음으로 한국 마운드에 오르게 되며, 일본에서 돌아온 이승엽(삼성)과 김태균(한화)은 친정팬들 앞에 다시 선다.

LG 김기태·두산 김진욱 감독은 초보감독으로 첫 시범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교야구도 뜨거워요"

주말리그 17일 개막 … 전라권 7개팀 대결

아마야구의 열전이 시작된다.

2012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17일 군산구장을 비롯한 전국 야구장에서 개막한다.

'경기조작을 예방하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내건 2012 고교야구 주말리그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권역별 리그 2회(동일권·광역권), 왕중왕전 2회(황금사자기·청룡기)로 나눠 펼쳐진다.

전라권에서는 광주일고·진흥고·동성고·화순고·효천고·군산상고·전주고 7개팀이 대결을 벌인다.

전라권의 첫 경기는 17일 오전 10시 동성고와 군산상고가 장식한다. 진흥고와 화순고는 오후 12시30분, 효천고와 광주일고는 오후 3시 2012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주말리그는 각 구장마다 하루 3경기가 열린다. 각 팀은 11~13게임씩을 소화하게 되며, 선수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말에만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PGA 회장 전윤철씨

전윤철(72) 전 감사원장이 한국남자프로골프협회(KPGA)를 이끌게 됐다.

KPGA는 지난 14일 밤 서울 송파구 석촌동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 전 감사원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 출신으로 행정고시 4회인 전 전 감사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총리 겸 옛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로 이름을 날렸다.

제15대 KPGA 회장으로 추대된 전 전 감사원장은 "골프의 산업화를 통해 한국 골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KPGA는 새 수장 영입으로 지난해 박삼구 회장 퇴임 이후 4개월여의 혼선이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갈등을 봉합해야할 획기적인 치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웃음폭탄 터진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감독, 일고 후배들 사인공세에 싱글벙글

'무등산 폭격기'가 후배들의 재롱에 웃음이 터졌다.

KIA 타이거즈 선동열 감독은 15일 모교인 광주일고를 찾았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천연잔디 교체 공사가 진행되면서 훈련을 위해 광주일고 인조잔디 구장을 빌린 것이다.

선 감독이 모교를 찾았다는 소식에 교복차림의 후배들은 종이와 펜을 들고 운동장으로 몰려 들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몰려든 학생들로 즉석 사인회가 열렸지만 이후에도 학생들의 행렬은 계속됐다.

계속된 사인 공세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배님'이라는 단어에 선 감독은 웃음을 터트리며 펜을 움직였다.

까마득한 후배들이 "선배님~ 사인해주세요!"라며 사인을 요청한 것이다.

1981년 광주일고를 졸업한 '하늘같은 선배' 선 감독은 사인을 다 끝낸 후 "내 아들보다 어린 애들인데 선배라고 한다"고 웃으면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CC 봄맞이 고객이벤트

구 분		3월 14일~3월 31일	4월 1일~4월 30일
주 중 그린피	1부 첫팀~08시 이전	7만원	9만원
	08시~1부 막팀	10만원	10만원
	2부	10만원	12만원
주말 그린피		15만원	16만 5천원

1. 매주 월요일 로즈데이(여성고객) 그린피 : 9만원(1, 2부 전체)
2. 상기 그린피는 카트비 별도임 (예약전화. 061-320-7700, 7777)